

<2015.06.18.>

全北日報

2013년 06월 18일 (화)
특집 20면

“사람과 자연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 만들겠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고창군

● 사업 성공 이끈 이강수 군수

“고창 지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간과 생물권계획’에서 착안한 ‘사람과 자연 모두가 조화롭게 행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계 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에도 참여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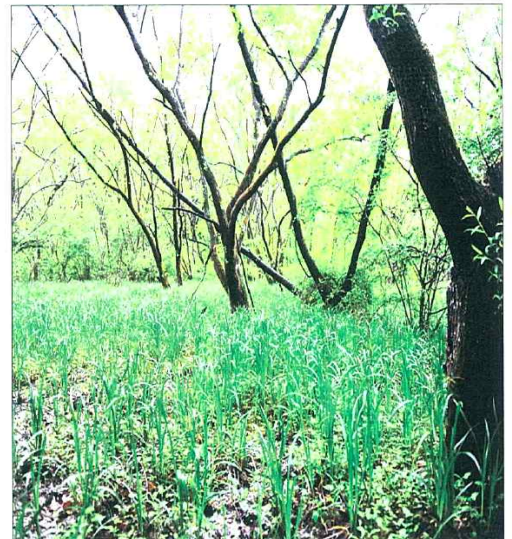
민선 5기를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이강수 군수는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이번 성과를 군민과 4년여 동안 고성원 공무원, 관계기관 등에 돌리고, 연일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고창군의 비전 설화에 여념이 없다.

이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특산물들은 유

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명품이 돼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파워 강화로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설명하고 “핵심지역은 생태계를 더욱 보전하고, 완충지대는 생태 체험교육과 BR지역(생물권보전지역)의 특징을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할 것이며, 전이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등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고창 인천강은 서해에서 유일하게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자유롭게 섞이는 곳)의 원형이 보전된 강으로(하굿둑이 없어서 자연 상태 지형을 그대로 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노랑부리백로와 붉은배새매, 밀푼귀리, 새올귀리,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마마도요 등 7종이 서식하고 있어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운곡습지와 인천강이 랍사르습지로 지정된다면 고창군은 산지, 하천, 연안 랍사르습지를 보유한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고창=김성규기자

“생태통로 중심 인천강도
람사르습지로 등록 추진”



운곡습지. 지난 2011년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이곳에는 106과 428종의 관속식물과 19종의 포유류, 75종의 조류 등 543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패각지가 세월이 흘러 저층습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되고 있어 자연과 의학 습지복원사례의 대표로 꼽히고 있다.



금소만에 위치한 고창갯벌, 반 패쇄형 갯벌로 풀, 모래, 혼합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되고 멸종위기종의 중요 서식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석묘(고만들)군,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간리 일대의 마산마을을 중심으로 고인돌 총 447기가 분포해 있다.

● 개발 방향과 혜택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위원회'에서 고창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설악산, 제주도, 신안도해, 평릉 숲에 이은 국내 5번째 등재이며, 군 행정구역 전체가 등재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 중 하나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 지역들이 환경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면, 고창군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지역으로서 생활중심지까지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군 전체 면적(671.52㎢) 중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운곡습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림저수지, 선운산도립공원 등 주요 보호지역을 핵심지역(91.26㎢, 14%)으로, 핵심지역 주변의 산림지, 하천, 염습지, 시구 등을 완충지대(265.54㎢, 40%)로, 기타 농경지와 주민 거주지역을 전이지역(314.70㎢, 46%)으로 설정했다.

국내 최초군전지역 등재 생활중심지까지 포함 특징

핵심지역 연결 생태관광

농수특산물 브랜드 파워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추진 배경과 과정=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해 생물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1971년부터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인간과 생물권계획) 사업을 시작해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고창군은 잘 보존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유산, 유서 깊은 전통, 다양한 문화 자원을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자원의 생물권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 한국MAB, 전라북도의 도움을 받아 등재를 추진했다.

2010년 2월 한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위원회(MAB) 조도순 부위원장을 초청해 사

전 답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환경 및 생태학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2011년 1월 MAB 정기총회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어 5월부터 핵심, 완충, 전이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쳤으며, 6월 한국MAB의 재문을 받아 9월 말 최종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위원회에서 고창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의 개발 방향= 기존 국내 BR(생물권보전지역)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환경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면, 고창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지역으로서 실제 생활중심지까지 포함해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은 BR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와 고인돌박물관, 람사르습지 등 특화된 유적지, 인천강을 통해 연결되는 고창갯벌, 선운산 도립공원, CNN의 추천여행지로 선정된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해 글로벌 시대에 사랑받는 문화 및 생태 관광

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종과 관리, 발전을 이끌어 낼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해안가 일부지역을 선정 소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정 수준 성장에 이르면 사업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고지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에 따른 혜택=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상징하는 로고(이하 BR 로고)를 농특산물에 부착하게 되면 가격 상승과 판매 증대로 이어져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이 6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되고, 내륙관광자원을 활용한 BR 특화마을과 생태마을을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BR 생태관광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고창을 알리게 된다.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은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명품에 때 인지도가 향상되고, 브랜드 파워 강화로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공동체사업 지원 등으로 마을 주도형 사업이 활성화되고 관광명소로서 지명도가 상승하게 된다. 향후 21세기 신성장 동력 모델로서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